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해성사	주 일 ☞ 미사 전 30분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 미사 전 15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아세례	홀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면혼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축 성탄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본당 사제단, 수녀원, 사목위원 일동 -

⊙ 미사시간 안내(성탄 대축일 및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12월 24일(화) <성탄 밤 미사>	오전 6시, 10시 (평일미사) **오후 8시 (구유경배 및 성탄 밤 미사)** **(미사 후 떡과 대추차 나눔)**
12월 25일(수) <성탄절>	오전 9시, 11시(교중) 오후 3시(초·중·고), 7시 **(※오전 6시, 오후 5시 미사는 없습니다.)**
12월 31일(화) <송구영신>	오전 6시, 10시 (평일미사) **오후 10시 30분 (송구영신 미사)** **(※ 오후 7시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 미사 후 재야의 종 행사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9시, 11시(교중) **(※교중미사 후 신년 하례식)** 오후 3시(초·중·고), 7시 **(※오전 6시, 오후 5시 미사는 없습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기도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12월 1일(주일) ~ 2020년 11월 28일(토)까지

⊙ 고해성사 휴무 : 12월 23일(월)~ 1월 4일(토)

⊙ 구역주일 (12구역 주관, 미사 후 친교나눔)
- 일시: 12월 22일(오늘) 오전 11시 교중미사

⊙ 병자안수 축복식: 12월 29일(주일) 교중미사 후

⊙ 유아세례 신청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12월 2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방종우 야고보 부주임신부님 피정
- 12월 26일(목)~12월 31일(화)까지 피정하시는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을 위하여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0년 첫영성체 가정교리 (6개월 과정)
- 일시: 2020년 2월 8일(토,첫모임) ~ 7월 19일(주일)
-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현 초등학생 2~5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본당 교적자 한함)
- 문의: 김 루치아 (010-6847-5293)

⊙ 배청민 미카엘 새 사제를 위한 기도
- **서품식: 2월 7일(금) 오후 2시, 올림픽 체조경기장**
- 사제품을 받게 될 배청민 미카엘 부제를 위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제 서품(敍品) 공시
- 사제 서품을 받게 될 배청민 미카엘 부제에게 성직직분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결함이 있는 줄 알면 누구든지 양심적으로 주임신부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면이나 구두로 1월 10일(금)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등부 주일학교 동계피정 (12월 28일 신청마감)
- 일시: 2020년 1월 4일(토) ~ 1월 5일(주일) 1박 2일
- 장소: 성심원(경기도 용인) // • 회비: 4만원
- 문의: 정 테오도로 (010-5645-7042), 성당 사무실

⊙ 라오스 청년 해외 봉사단 모집 (라오스 파스칸)
- 일시: 2월 4일(화) 출발 ~ 2월 11일(화) 도착, 6박 7일
- 비용: 항공료 개인부담 (50만원, ※기타비용: 본당지원)
- 문의: 김 프란치스코 (010-5449-6448)

⊙ 대림 저금통 12월 29일(주일)까지 사무실 제출

⊙ 계좌이체 납부자 중 불명분 안내 (사무실 확인)

교무금 우리은행181-04-117222
4101700059, 3월교무금, 6월, 강화정, 권혜진, 김명숙, 김복순, 김복희, 김서현, 김수희, 김숙자, 김연주, 김영철, 김영희, 김유미, 김은경, 김정애, 김종택, 김진우, 김혜숙, 김혜원, 김효진, 데레사, 라파엘라, 루치아노, 박성옥, 박영우, 박지혜, 박진숙, 박혜성, 성기홍, 성은주, 송미령, 신영선, 심선영, 아가다, 오진영, 이경숙, 이명순, 이문숙, 이수진, 이승희, 이시윤, 이아영, 이영숙, 이원철, 이자영, 이정숙, 이정아, 이지은, 장영준, 정은덕, 정재호, 조경희, 조수빈, 최동수, 최영옥, 최영자, 크리스티나안, 한명균, 홍승희

해외선교후원회 우리은행 1005-003-133453
홍영화, 나효순, 김숙자, 김은경

빈첸시오회 국민은행 809101-04-164029
김윤미, 이미희, 신영숙, 김옥진

바보회 하나은행 843-910006-15404
정재호, 최영옥

티모테오 장학회 하나은행 843-910006-64404
이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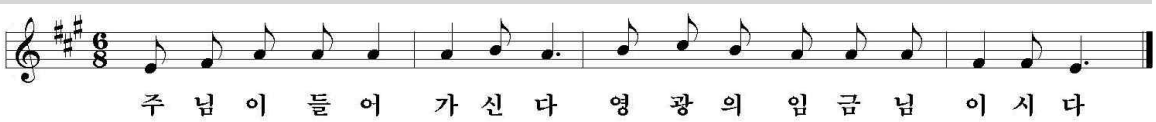
⊙ 12월 22일(오늘): 시설보수 2차 헌금

⊙ 12월 26일(목): 사무실 성탄절 대체휴무

모 임
- 12월 23일(월): 성령 기도회 (강사: 신재호 분도)
- 12월 24일(화): 시니어 연령회
- 12월 27일(금): 제대회 / 예비신자 봉사회
- 12월 28일(토): 성찬 봉사회 / 연령회 총회

성가번호 입 당: 89 예물준비: 216, 511 성 체: 498, 174 파 견: 93

화 답 송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12)

서평 <용서가 어려울 때>(8)

성녀 요안나의 일화

서로 사촌 지간인 크리스토프와 당르지가 사냥 여행 중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당르지가 쏜 총알이 빗나가며 크리스토프의 넓적다리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게 했다. 때는 1601년 크리스토프가 결혼한 지 9년, 올망졸망한 어린 자녀가 네 명이 있었고, 부인은 28세 요안나였다. 크리스토프는 부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사고를 낸 당르지는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자신을 미워하지 말게.”하며 크리스토프는 당르지를 용서했고,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당르지를 고소하지 못하게 자신이 용서했다는 진술을 교회 기록에 남겨놓기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그는 용안나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당르지를 용서하라는 남편의 유언에도 미망인 요안나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우울증에 빠지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았다. 남편을 졸지에 잃은 커다란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차츰 건강을 헤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안나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며 하느님께 매달리며 영적 지도자를 청하였다. 하느님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그녀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였다. 프란치스코 주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함을 잘 알았고, 서두르지 않고 요안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 몇 년 후 요아나는 당르지 집에 초대받았고, 당르지가 자기 딸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터뜨리며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남편이 죽은 지 6년 만에 요안나는 당르지를 완전히 용서했고, 그 이후로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주교의 권유로 수도자가 되어 자선활동을 하는 수도회를 설립하고 많은 분원을 세웠으며, 선종 후 성녀로 시성되어 매년 8월 12일 기념일로 기억되고 있다.

선택은 우리 몫

프란치스코 성인은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느님은 한 손에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건 그 지우개로 지워버리신다.” 그렇다. 하느님은 당신이 가지신 지우개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건 깨끗이 지우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지우개를 주셨다. 남이 잘못한 것을 우리도 지워서 상대방이 새롭게 살아가게 해줄 수 있다.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고 치유해 주지 않는다면 분노에 갇혀 괴로운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영원으로 건너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있기를 바라는가? 고통받고 분노한 사람이고 싶은가? 아니면 평화롭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은가? “어두움을 탓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밝히는 편이 낫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당신 안의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용서로 빛을 밝혀 그 어두움을 흩어버리기 바란다. 당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178쪽)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대림 제 4주일 봉헌금	12,356,350원	총 세대수	4,190세대
자선주일 2차	7,736,900원	총 납부세대	1,480세대
교무금	56,450,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27세대
성소후원금 (9건)	462,000원	총 납부율 (%)	35.3%

감사 헌금 (12/11~12/17)

박 요안나	1,000,000원	김혜윤	30,000원	김 헤레나	200,000원
정 요셉	100,000원	류 모세	100,000원	이 리디아	100,000원
이 스테판	20,000원	류 이레나	100,000원	익명	200,000원
한 아네스	100,000원	임 요한	100,000원	합계:2,380,000원	
이 데레사	50,000원	강 아녜스	100,000원		

성탄 꽃 봉헌 (11/17~11/30)

장 가브리엘라	50,000원	이 베드로	100,000원	강 바오로	30,000원
배 요셉	100,000원	장 데레사	50,000원	주 로도비코	100,000원
정 스테파노	50,000원	이 다미아노	50,000원	익명	50,000원
오 레지나	20,000원	정 스테파노	100,000원	합계:950,000원	
황 안나	200,000원	원 세실리아	50,000원		